

지역 매 아 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전북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병관)는 지난 20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진섭 정읍시장,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안중 위원장을 비롯한 정읍, 고창, 부안 민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전라북도 권역별 교육으로 정읍, 고창, 부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 강사로는 이종섭 연구위원(전북연구원)과 백종만 교수(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초빙되었으며, 교육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해와 위원의 역할 강화와 우수시군 사례발표로 진행되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해풍고추축제 안전심의회

고창군이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해리면 복지회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2회 고창해풍고추축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축제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된 심의회는 고창군청,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축제 안전관리계획(안)에는 축제개요 및 시설물 관리사임과 관리 조직, 비상시 대응해야 할 조치사항 및 연락체계,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사항,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실무위원들은 이러한 내용이 지역축제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된 안전관리계획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등 안전한 축제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아울러 오는 24일에는 축제장 시설물 전반에 대한 고창군, 경찰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축제장 부스별 가스 시설 설치상태 및 전기시설 접지 등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프로그램 진행위치 등을 확인하고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축제현장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결과 안전관리 상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고,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완하여 축제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정읍시, 태풍 솔릭 비상 대비 긴급대책회의...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

정읍시가 제19호 태풍 ‘솔릭(SOLIK)’이 곧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22일 오후쯤 제주도를 관통한 뒤 23일 오전 목포를 통해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대전, 세종, 충북 충주를 거쳐 중부지방을 지난 뒤 강원 고성 인근을 지나쳐 23일 늦은 오후나 24일 이른 오전 동해상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1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인태 부시장 주재로 제19호 태풍 ‘솔릭’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안전총괄과를 비롯해 주민지원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예코축산과,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협업 부서장과 23개 읍면동장이 참석

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긴급 대책회의는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우고 있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시장은 “22일부터 정읍이 태풍 솔릭 영향권에 들어가는 만큼 각 협업 부서와 읍면동의 선제적 상황관리와 재해위험지역 예찰활동 강화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며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파손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21일부터 22일까지 긴급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태양광 설비업체

관계자 30명으로 15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지지대와 볼트 너트 조임 정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태풍의 진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강풍과 폭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비닐하우스와 양봉, 대형 공사장, 농작물·축사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태풍 주의보와 경보 등 단계별 신속한 대응으로 단 한건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하천변 주차 금지 등의 태풍 대응 행동 요령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솔릭’은 지난 2012년 9월 한반도에 상륙해 큰 피해를 남긴 ‘진박’ 이후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9월부터 717개소 경로당을 매월 방문,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해소하는데 주력한다.

“어르신이 행복해야 정읍이 행복합니다”

내달부터 경로당 방문 정례화 등 어르신 챙기기 ‘분주’

정읍시가 어르신이 행복한 정읍 만들기 총력을 쏟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건강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소외감 등이 많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시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눈에 띄는 것은 경로당 방문 정례화이다. 시는 9월부터 717개소 경로당을 매월 방문,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해소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물론 크고 작은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계획에 따르면 유 시장을 비롯한 김인태 부시장, 국소장, 과소장,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매월 2~3회씩 경로당을 찾게 된다.

어르신들과의 소소한 대화로 정을 나누며 수렴한 의견 등은 어르신 정책에 반영할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폭염 시 건강관리 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해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은열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이와 노인복지 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금봉동에 38억원을 투입해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치매안심센터를 건립 중이고, 상당부터 맞춤형 진료에 이르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서남부권 지역응급의료센터와 독거노인 응급 비상 알리미 구축도 추진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태풍 ‘솔릭’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가져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에 따라 부안군이 전병순 부군수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 및 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 21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병순 부군수 주재로 태풍의 이동 경로와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연재난 협업부서에 대한 조치사항과 대처계획을 점검, 확인했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군민들이 태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을 일제방수와 함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하수도시설, 하천, 노후 저수지 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및 사전 예찰활동을 하고 대형 사고가 우려 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부안군 전병순 부군수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재난안전상황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태풍 진로 상황을 전파하고 읍면에서는 즉각적인 대응하기가 가능토록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등 태풍



이 통과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이른 새벽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 찾아 구슬땀

유기상 군수, 고창읍 환경미화원과 소통의 시간 가져

유기상 고창군수가 21일 깨끗하고 쾌적한 고창을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 군수는 이날 이른 새벽부터 고창읍 시가지를 돌며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청소차량에 탑재하고 각종 쓰레기를 수거와 거리 청소 등 환경미화에 나섰다.

아울러 올 여름 폭염 속에서도 ‘깨끗한 고창’을 위해 매일 이른 아침부터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

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기상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근무해준 덕분에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함께 잘 사는 고창을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같은 마음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쓰레기 문제 또한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등 군민들의 성숙한 군민의식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읍은 총 32명(운전직 6명, 환경미화원 26명)이 매일 이른 새벽



부터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늘고 있어, 각 세 대별로 직접 찾아다니며 올바른 쓰레기 버리기에 대한 계도 활동과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돌발해충 성충기 적기 방제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는 21일 호남고속도로 정읍녹두성군휴게소(하행선) 인근 산림에 산림녹지과와 함께 돌발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은 전북 전 지역에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산너트나무에 고속도로휴게소 인근 산림에 발생되었다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읍시는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속도로휴게소 인근 산림을 집중적으로 방제하고 있다. 현재 성충기인 돌발해충은 사과, 단감 등 기주식물(곤충이나 애벌레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줄기와 잎에 붙어 흡즙하

고 배설물로 인해 과실에 그을음병을 일으켜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효과적인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현재는 성충기 적기방제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방제하고, 8월말부터 시작되는 산란기에 도 지속적인 방제와 예방로 과수재배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수의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 검출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과수농가에 약제사용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정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정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번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750ml 1ea/12%

GIFT SET 4: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375ml 5ea/13%

GIFT SET 6: 500ml 람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h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